Angela Lee-Smith
EALL/Yale

소리내서 읽기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들입니다. 큰 소리로 자연스럽게 여러 번 읽어 보세요.

【시골쥐와 도시쥐】

시골의 쥐가 도시의 쥐를 초대하였는데, 도시쥐가 "우리가 사는 곳에는 맛있는 음식이 산처럼 많다"고 자랑하였다. 시골쥐가 도시에 가보았더니 치즈·과자·벌꿀 등 먹을 것은 많았지만 집사람들이 자주 왕래하여 매우 위험하였으므로 놀라서 시골로 되돌아왔다. 위험 속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보다, 검소하지만 마음놓고 살 수 있는 편이 더 낫다는 이야기이다.

【바람과 태양】

북풍과 태양이 힘자랑을 하게 되었다. 길손의 외투를 벗긴 쪽이 이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우선 북풍이 시작하였다. 북풍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길손은 더욱 단단히 옷을 여미었다. 다음은 태양이 조금씩 열을 더하는 데 따라 길손은 옷을 하나씩 벗었다. 이 이야기는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설득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이다.

【개미와 비둘기】

샘물을 먹으려던 한 개미가 물에 빠지게 된 것을 보고 비둘기가 나뭇잎을 떨어뜨려 구해주었다. 그 후 사냥꾼이 비둘기를 겨누고 있는 것을 본 개미는 사냥꾼의 발을 물었다. 사냥꾼이 아파서 새 잡는 총을 던져버렸으므로 비둘기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은인에게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자와 여우】

늙어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사자가 병든 척하고 동굴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병문안 오는 동물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어느날 여우가 찾아왔으나 동굴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아서 사자가 그 이유를 묻자, 여우는 "안으로 들어간 동물의 발자국은 많으나 밖으로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증거를 보고 위험을 미리 알고 미리 피한다는 이야기이다.

소리내서 읽기

【여우와 포도】

배고픈 여우가 포도송이를 찾아냈으나 너무 높아서 따 먹을 수가 없었다. 여우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저 포도는 아직 익지 않아서” 라고 중얼거렸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의 힘이 모자라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핑계를 대는 이야기이다.

【거북과 토끼】

거북과 토끼가 빨리 달리기경주를 하였다. 토끼는 자기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을 자만하여 도중에 잠을 잤으나, 자기가 느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북은 쉬지 않고 계속 달려 결국 승리하였다는 이야기이다.

2.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말해 보세요.
   [숙제]공책에 이야기를 써 보세요.

(1)

(2)

소리내서 읽기

(3)

(4)

(5)